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고진경*

승실사이버대학교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 주관적 안녕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한 집단괴롭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의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결측치를 제외한 2,27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은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지지, 사회적 역량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사회적지지, 사회적 역량, 주관적 안녕감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은 유의미한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다. 집단괴롭힘 경험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의 영향을 끼치지만,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을 통해 주관적인 안녕감에 보호효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다문화청소년, 집단괴롭힘,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지지, 사회적 역량

* 주저자: 고진경/승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34번지
/Tel: 02-708-7810/E-mail: gjksyr@mail.kcu.ac

I. 서론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유입으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추세는 다문화 청소년의 양적 증가로 이어졌고, 한국 사회는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 과제를 안고 있다(박선숙, 2022). 다문화 청소년들은 생김새의 차이, 이중문화로 인해 조롱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으며, 다문화 환경으로 인해 집단괴롭힘의 상대가 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다문화 배경의 청소년이 소수인 한국 학교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들의 집단괴롭힘 경험 가능성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수, 원성준, 2023).

집단괴롭힘은 다수의 개인이 특정대상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로 힘이 강한 다수의 개인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개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다(Maynard et al., 2016). 다문화 청소년들은 생김새, 문화의 차이, 낮은 사회 경제 수준, 이중 언어로 인한 언어적 능력의 결함 등 집단괴롭힘 피해의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집단괴롭힘의 피해학생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높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심희옥, 2002), 집단괴롭힘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감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지표이다(박진아, 2015). 다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은 비다문화 청소년과 차이를 보이는데, 다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이 비다문화 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유

발하고 그로 인해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등의 여러 정서적 문제들을 초래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집단괴롭힘을 당한 청소년들 중에는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집단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면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주, 윤기봉, 2018). 이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주관적인 안녕감에 내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 발달과 적응의 지표인 사회적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역량을 갖춘 학생일수록 집단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진형, 2022).

지금까지의 다문화 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역기능적 측면이나 결핍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류도희, 2022), 역기능이나 결핍에서 벗어나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발달과 성장을 통해 성인기로 진입해야 하는 발달과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은 미래의 삶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높은 활동성 및 적응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형, 2020).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다문화 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살펴보고, 집단괴롭힘과 같은 부정적인 피해경험에도 다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제를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 문화적 차이 등의 다문화 배경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생김새, 문화적 차이 때문에 차별의 대상이 되며, 특히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오인수, 2014).

집단괴롭힘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호관계에서 복수의 사람이 한 명 또는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Olweus, 1994). 선행연구에 따르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학교부적응, 우울, 위축, 불안, 자살 사고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인수, 2014). 다문화 청소년들의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등교거부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이나 자살사고 및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래혁, 장혜림, 2020). 결국 이러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전반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시사된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지표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Fujita et al., 2005). 선행연구에 따르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더불어 주관적 안녕감에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이 비-다문화 청소년들과 차이가 있는데, 다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이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효경, 서찬석, 2022).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집단괴롭힘은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증가시켜,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Boulton et al., 2023).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유발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성인기 이후까

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런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완화하고 보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고려할 수 있다(이유리, 김춘경, 2023).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한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사회적, 물질적 자원을 총칭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로부터 자신이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안전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 연결망은 개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Cohen et al., 195). 다문화 청소년에게도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과 학교생활 및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중요한 변인이며, 주변의 정서적 관심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자원으로 개인의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완충해주고,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으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으로부터 보호해주거나 피해경험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여(장유진, 2019)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학업, 동기,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문은식, 2005).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 체계로부터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부여받는 것은 집단괴롭힘 등의 피해경험을 극복하고 적응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대인관계 능력인 사회적 역량 또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경옥, 2015).

사회적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관계

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역량이 높은 청소년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높은 수준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을 인식함은 물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동진, 김송미, 박경아, 2022). 청소년기의 사회적 역량은 사회적 관계의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특히 청소년이 속한 환경 중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교에서 교사 및 또래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고 협력과 갈등해결을 위한 필수역량으로(홍기목, 2005),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등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주관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주관적 안녕감도 향상되는 것으로 시사된다(김민주, 윤기봉, 2018).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또래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이나 놀림의 대상이 되어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사회적 역량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은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사회적 역량이 높을수록 집단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진형, 2022). 이러한 사회적 역량은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관적 안녕감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두환, 김지혜, 2011; 김애희, 윤종희, 김리진, 2010).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갖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 패널 2기 1차년도 원시자료를 활용하였고, 원시자료에 포함된 2,271명의 표본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51.3%, 여자 48.7%였고, 연령은 9세 0.7%, 10세 94.5%, 11세 4.2%, 12세 0.7% 13세는 거의 0.0%였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30.0%, 고졸 44.7%, 2~3년제 대학 9.7%, 4년제 대학교 13.4%, 대학원 2.1%였고, 배우자 유무에서 89.2%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대도시 31.0%, 중소도시 55.3%, 읍/면 13.7%였다.

2. 측정도구

집단괴롭힘

집단괴롭힘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성한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다른 학생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한 험한 욕설을 듣거나 놀림을 당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심한 집적거림이나 또는 놀림을 당했다’ 등 6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84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다문화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 2기 조사 항목 중 ‘삶의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지경 등(2010)의 문항을 사용한 것으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80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한미현이 만든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996). 사회적 지지는 총 19개 문항을 구성되었으며, 부모지지 6문항, 교사지지 6문항, 친구지지 7문항이 포함된 3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86이었고, 부모의 지지는 .88, 친구의 지지는 .84, 교사의 지지도 .84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사회적 역량

사회적 역량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였다(2017). 사회적 역량은 모두 3문항으로 ‘사람과 잘 어울린다’,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84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3.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 원시자료의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진행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사회적 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사회적 역량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2018). SPSS Process macro의 매개효과 모형인 Model 4를 적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6과 Process macro 4.2를 활용하였고,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III. 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지지, 사회적 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괴롭힘은 1-4점 범위에서 평균 1.12, 주관적 안녕감은 1-4점 범위에서 평균 3.36이었다. 부모의 지지는 1-4점 범위에서 평균 3.36, 친구의 지지는 1-5점 범위에서 평균 3.84, 교사의 지지는 1-5점 범위에서 평균 3.77이었고, 이를 종합한 사회적 지지는 평균 3.58이었다. 사회적 역량은 1-4점 범위에서 평균 3.22였다.

한편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집단괴롭힘은 경험이 없는 표본이 많아 왜도와 첨도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곱근 로그 변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왜도와 첨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변인에서도 모두 왜도는 2 미만, 첨도는 7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Curran et al., 1996). 결과적으로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집단괴롭힘만 제곱근 로

그 변환을 실시하면 통계분석을 진행하는데 있어 자료의 분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집단괴롭힘	1.12	0.33	4.11 (1.83)	20.77 (2.17)
주관적 안녕감	3.36	0.54	-0.59	0.28
사회적 지지	3.58	0.52	-0.24	-0.25
부모의 지지	3.36	0.54	-0.55	0.19
친구의 지지	3.84	0.81	-0.47	0.09
교사의 지지	3.77	0.81	-0.32	0.13
사회적 역량	3.22	0.59	-0.47	0.20

(): 계급근 로그 변환 후의 왜도와 첨도

2.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지지, 사회적 역량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괴롭힘은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0, p<.001$). 집단괴롭힘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11, p<.001$),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친구의 지지와 특히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26, p<.001$), 사회적 역량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7, p<.001$).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52, p<.001$), 특히 부모의 지지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적 역량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54, p<.001$).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61, p<.001$), 사회적 지지 중 친구의 지지는 사회적 역량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2>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3.1	3.2	3.3	4
1. 집단괴롭힘	1						
2. 주관적 안녕감	-.20***	1					
3. 사회적 지지	-.21***	.52***	1				
3.1. 부모의 지지	-.11***	.45***	.80***	1			
3.2. 친구의 지지	-.26***	.38***	.74***	.35***	1		
3.3. 교사의 지지	-.11***	.35***	.75***	.35***	.43***	1	
4. 사회적 역량	-.27***	.54***	.61***	.46***	.53***	.40***	1

*** $p<.001$

3. 집단괴롭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본 연구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사회적 역량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 집단괴롭힘과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Hayes(2018)가 제안한 부트스트랩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그림 1>과 같다. 매개효과 모형인 Model 4를 적용하였고, 신뢰수준 95%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모든 경로에서는 변인의 순수한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성별,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부모님 결혼상태, 거주지역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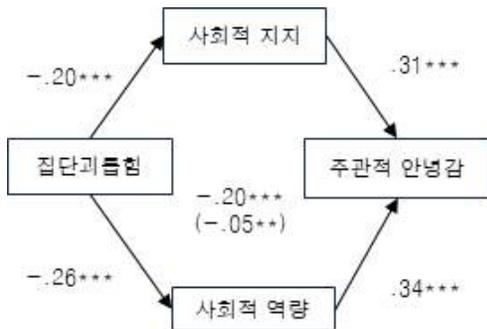
그 결과 집단괴롭힘은 주관적 안녕감($\beta=-.20, p<.001$), 사회적 지지($\beta=-.20, p<.001$), 사회적 역량($\beta=-.26, p<.001$)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지지($\beta=.31, p<.001$)와 사회적 역량($\beta=.34, p<.001$)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쳤다. 집단괴롭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이 투입되면 감소되었다. 즉 집

단괴롭힘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3> 측정변인간의 매개효과

경로	B	SE	β	t	p	R2
1-1 집단괴롭힘→ 사회적 지지	-.38	.04	-.20	-9.55***	.000	.06
1-2 집단괴롭힘→ 사회적 역량	-.59	.05	-.26	-12.85***	.000	.08
2 집단괴롭힘→ 주관적 안녕감	-.40	.04	-.20	-9.46***	.000	.05
3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	.33	.02	.31	14.43***	.000	.36
사회적역량→ 주관적 안녕감	.31	.02	.34	15.67***	.000	

** p<.01, *** p<.001, 일반적 특성의 효과를 통제함



<그림 1> 각 경로별 효과 크기

부트스트랩을 통해 도출된 간접효과 크기와 95% 신뢰구간을 보면, 집단괴롭힘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06 이었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08~-.05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집단괴롭힘이 사회적 역량을 매개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10이

있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13~-0.08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집단괴롭힘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을 매개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정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사회적 역량을 매개한 간접효과 크기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집단괴롭힘과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간접효과 경로	β	SE	95% CI	
			LLCI	ULCI
집단괴롭힘→사회적지지→ 주관적 안녕감	-.06	.01	-.08	-.05
집단괴롭힘→사회적 역량→ 주관적 안녕감	-.10	.01	-.13	-.08

한편 부모, 친구, 교사 중 어느 지지가 가장 큰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했지만, 특히 부모의 지지를 매개한 효과가 가장 높았고(β =.03), 다음으로 친구의 지지를 매개한 효과가 높았으며(β =.02), 교사의 지지를 매개한 효과가 가장 낮았다(β =-.01).

<표 5> 집단괴롭힘과 주관적 안녕감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 매개효과

간접효과 경로	β	SE	95% CI	
			LLCI	ULCI
집단괴롭힘→ 부모의지지 → 주관적 안녕감	-.03	.01	-.04	-.02
집단괴롭힘→ 친구의지지 → 주관적 안녕감	-.02	.01	-.03	-.01
집단괴롭힘→ 교사의지지 → 주관적 안녕감	-.01	.01	-.02	-.01

IV. 논의

본 논문은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괴롭힘은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지지, 사회적 역량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 주관적 안녕감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괴롭힘 경험이 많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낮고,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의 수준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은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김형희, 김용섭, 2022).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괴롭힘 경험이 많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은 낮아지지만, 사회적 지지를 받고 사회적 역량이 있으면 이들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Boling, et al., 2011). 이 결과는 집단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이 뒷받침되면 그 개인은 주관적 안녕감을 긍정적으로 인지함을 의미한다(이기수, 원성준, 2023).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 중 부모지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으로부터 주관적 안녕감에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지지, 교사지지 역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으로부터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원영, 김경식, 2020). 부모와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격려와 응원을 매개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불안 및 우울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감이 유지되도록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Crockett, et al., 2007).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에서 또래들과의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또래들로부터 받은 괴롭힘 경험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더라도 부모나 친구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은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기능과 수용능력의 향상을 도울 수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은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인한 주관적 안녕감에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데, 본 연구 결과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청소년기에 적절한 사회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유혜영, 박진아, 2023), 부모,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타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향상된 역량은 집단괴롭힘의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고 주관적 안녕감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Wee센터, 다문화 청소년 지원센터 등의 현장에서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대인관계나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주관적 안녕감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모, 친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와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이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돕는 사회적 기술의 습득을 격려하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 모든 사회적 관계망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서 집단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때 주변 환경 안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사회적 역량 함양을 통해 갈등상황 발생 시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키움으로써 사회의 구

성원으로 잘 적응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표본을 사용하여 전국단위의 자료라는 점은 장점이지만 이미 구성되어 있는 문항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질적 연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변인들을 구체화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패널조사의 표본을 사용하다보니 연구 대상의 연령분포가 편중되어 있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검증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함이 요구된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부모지지, 친구지지의 중요성 및 역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가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은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두환, 김지혜 (2011). 부모, 친구,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 4(4), 128-168.
- 김민주, 윤기봉 (2018).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73-388.
- 김애희, 윤중희, 김리진 (2010). 인문계열 남자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1(2), 177-201.
- 김원영, 김경식 (2020). 학교폭력 가해행동 관련 억제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693-717.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형 (2020). 청소년의 관계적 특성과 청소년활동 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62(1), 82-119.
- 김형희, 김용섭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5), 173-179.
- 김효경, 서찬석 (2022). 집단괴롭힘 경험이 다문화배경 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3), 437-458.
- 류도희 (2022).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 연구* 29(3), 271-298.
- 문은식 (2005).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4), 1087-1108.
- 박동진, 김송미, 박경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20(5), 803-812.
- 박선숙 (2022).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 위험 유형별 관련변인 연구. *미래사회*, 13(1), 20-39.
- 백진아 (2015). 융복합시대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3(9), 453-461.
- 심희옥 (2002).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발달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피해·친사회적 행동과의 횡·종단적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3(1), 1-15.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오인수 (2014).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괴롭힘 피해 경험과 심리 문제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 15(4), 219-238.
- 이기수, 원성준 (2023). 다문화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9(3), 401-424.
- 이래혁, 장혜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교우관계와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2(2), 121-144.
- 이유리, 김춘경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지지와 친구지지의 병렬 이중매개효과.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3(15), 621-631.
- 임진형 (202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관계에서 부모 지원의 조절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8(23), 169-186.
- 유혜영, 백진아 (2023).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 교류*, 12(3), 77-101.
- 장유진 (2019).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학업성취의 차이. *글로벌교육연구*, 11(4), 26-51.
- 최경옥 (2015).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홍기목 (2005).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Boling, M., Barry, C., Kotchick, B., & Lowry, J. (2011). Relations among early adolescents' parent-adolescent attachment, perceived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quality. *Psychological Reports*, 109(3), 819-841.
- Boulton, M. J., & P. Macauley, J. R. (2023). Does Authentic Self-esteem buffer the negative effects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Social Anxiety and Classroom Concentration? Evidence from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with early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2), 500-512.
- Cohen, S., & Wili, T.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01-357.
- Crockett, L. J., Brown, J., Russell, S. T., & Shen, Y. L. (2007) The meaning of good parent-child relationships for Mexican American adolesc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4), 639-668.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 1(1), p.16.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1st ed). The Guilford Press.
- Maynard, B. R., Vaughn, M. G., Salas-Wright, C. P., & Vaughn, S. (2016). Bullying Victimization among school-aged immigrant youth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8(3), 337-344.
- Olweus, D. (2016).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7), 1170-1190.

투고일자: 2024. 4. 26.

심사일자: 2024. 5. 20.

게재확정일자: 2024. 5. 28.

Relations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 of Bully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inkyung Goh

Soongsil Cyger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ed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i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ulticultural youth, especially those who have experienced bullying. The data from the first year of the second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programme, with 2,271 participants, are utiliz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experience of bullying among multicultural youth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whereas social support, social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howed positive correlation. Moreover,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mediat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us th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bullying negatively impacts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serve as mediating factors that can enhance it.

Key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Bullying,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upport, Social competence.